

##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54)(4/16/2022)

## 제 3 권 내적 위로

## 제 36 장 사람들의 판단은 헛됨, 1-2 절

딤후 3:16-17 -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엡 1:13-14 -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5:1-2 - 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 <그리스도> 아들이, 너의 마음을 주께 견고히 두고서, 네 양심이 네가 옳바르고 무죄하다고 말해 줄 때에는,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경우에, 사람들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좋고 복된 일이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심령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짓눌리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판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은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게다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려고 애쓰기는 하였지만(고전 9: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고전 4:3).

2.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종종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멸시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는, 세상의 헛된 생각들을 토대로 그 혀를 놀려서 불의하고 부당한 말들로 자기를 고소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인내와 겸손으로 대하였고, 다만 자신의 침묵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서 반박하였다.

**말씀과 해설:**

우리의 모든 삶은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다. 우리의 매순간은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을 고르고 두드리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는 과정의 연속이다. 한 순간의 결정은 우리의 삶에 단기적으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도 큰 영향을 준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른 판단, 결정,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계속된 결정과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다. **(1) 우리의 바른 선택과 결정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뜻을 가지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듯한 장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한다. 신 34:10 -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으실 때부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았다.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기록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시대의 바울의 경우에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주님을 대면하듯이 만났고, 그러한 만남은 그가 순교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중요한 것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알리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 불꽃, 그리고 엘리야가 체험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사르는 것과 같은 엄청난 가시적인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을 모신 우리 역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을 다양한 경로로 체험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그의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그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에 관하여 성경을 통하여 검증하고 확인하게 하신다. 바울은 성경말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딤후 3:16-17 -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만약 나의 생각과 판단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과 이 세상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그 판단과 결정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확신에 따라 결정하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시는 분이시다. **빌 1:19 -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엡 1:13-14 -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선적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계속적인 확신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에서 나타난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려고 결심하고 추진하였지만, 성령님은 그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였고, 바울이 계속 뜻을 찾았을 때에 마게도나인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주의 뜻을 확증해 주셨다(행 16 장). 성령님은 그가 고린도에서 고난을 당할 때(행 18 장),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행 27:23-24)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다. 성령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마음에 확증하심으로 결정하고 실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인간적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확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의 인간적 생각, 비난과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는 곳 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주의 뜻을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뚫고 전진할 수 있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확신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일어서게 할 것이다.

**(3)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결정하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 **엡 5:1-2 - 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선택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함과 긍휼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결정과 추진은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탁월한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결정이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탁월하지만 선하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기심 가운데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은 아닌 경우도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판단, 결정, 선택을 하는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정하시고 선택하셨고, 진정한 영적 승리를 얻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주님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2.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가 서게 하옵소서.
3. 우리가 속한 미국장로교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